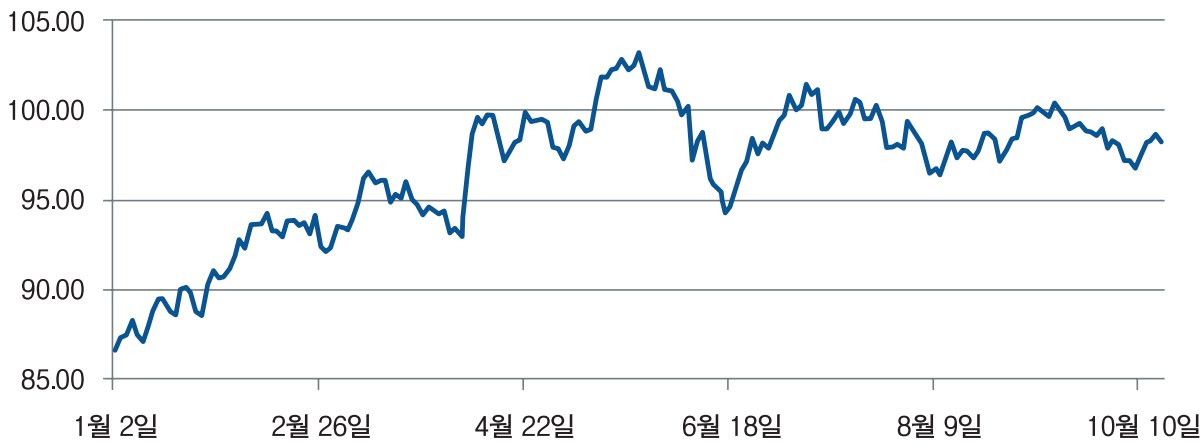
Vol. 37
2013. 10. 18
BS경제인사이트 Weekly
BS경제연구소

엔/달러 환율 전망

일본 아베내각은 출범 이후 과도했던 엔고를 시정하기 위해 일본은행의 양적 금융완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엔/달러 환율은 2013년 1월 2일 86.65엔에서 2013년 5월 23일 103.18엔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5월 이후 미국 연준 양적완화 정책이 금년내 축소될 수 있으며 일본 국채금리의 급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아베노믹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심리가 부각되면서 엔화는 미달러화에 대해 대체로 90엔대 중후반에서 등락하였다. 미국 및 일본의 경제지표 개선 상황,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전망 등에 따라 엔화 환율은 등락을 거듭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엔화 약세에 무게가 실린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폐쇄가 현실화되어 미국경제의 회복속도가 둔화되고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환거래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JP Morgan에 따르면 최근 외환거래규모가 4년래 최저 수준인데 이는 주요국 통화의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워 투자자들이 외환포지션을 중립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엔/달러 환율도 미국의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에 대한 보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타날 때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 엔/달러 환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Vol. 37
2013. 10. 18
BS경제인사이트 Weekly
BS경제연구소

세상 둘러보기

부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현황

부산에는 동삼지구(해양 · 수산특화), 센텀지구(영화 · 영상특화) 및 문현지구(금융특화) 3개 지역에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으며 모두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다. 이들 기관 중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이전하였으며 영화의 전당, 부산문화컨텐츠컴플렉스 등 영화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센텀지구는 이번 달에 영화 · 영상관련 공공기관 3곳의 이전도 완료되어 영화도시 부산의 위용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기관들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완공시기에 대부분 이전을 마치기로 되어 있다.

이전 공공기관의 현재 임직원 수는 5,570명이며 이중 절반이 부산에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부산경제에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다 많은 직원들이 부산에 뿌리내리며 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 부산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

혁신지구	기관명	입주(예정)	임직원수	주요기능
동삼지구 (해양 · 수산)	국립해양조사원	2012.12월	231명	해양측량, 해양관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12월	177명	해양정책연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014.12월	200명	수산물 안정성 조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5. 2월	471명	해양기초 · 응용과학기술 개발
센텀지구 (영화 · 영상)	영상물등급위원회	2013. 9월	142명	영상물 등급 분류
	게임물등급위원회	2013.10월	66명	게임물 등급 분류
	영화진흥위원회	2013.10월	216명	영화진흥계획 수립
문현지구 (금융 · 기타)	한국자산관리공사	2014. 9월	1,032명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한국예탁결제원	2014. 9월	454명	증권 등의 집중예탁업무
	대한주택보증	2014. 9월	299명	주택분양보증 및 임대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2014. 9월	312명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한국남부발전	2014. 9월	1,872명	전력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 9월	98명	청소년 상담 · 복지 관련 정책개발
합 계			5,570명	

Vol. 37
2013. 10. 18

BS경제인사이트 Weekly

BS경제연구소

▶ **금리 반락**
→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 타결 기대로 주 초반 상승했던 금리 하락

▶ **코스피지수 2000선 지속**
→ 외국인 매수세와 미국 부채한도 증액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 강세

▶ **원/달러 환율 9개월 만에 최저(원화강세)**
→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 타결 기대로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가 3천억 원을 넘은 것이 환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해석

◉ 금리

	2012년말	2013. 8월말	2013. 9월말	10/11	10/14	10/15	10/16
기준금리	2.75	2.50	2.50	2.50	2.50	2.50	2.50
CD(91일)	2.89	2.66	2.66	2.66	2.66	2.66	2.66
통화안정증권(1년)	2.78	2.66	2.67	2.67	2.68	2.68	2.67
국고채(3년)	2.82	2.88	2.82	2.86	2.88	2.88	2.87
회사채(3년, AA-)	3.29	3.25	3.24	3.27	3.29	3.29	3.28
회사채(3년, BBB-)	8.80	8.96	8.97	9.03	9.05	9.05	9.03

◉ 주가

	2012년말	2013. 8월말	2013. 9월말	10/11	10/14	10/15	10/16
KOSPI	1,997.1	1,926.4	1,997.0	2,024.9	2,020.3	2,041.0	2,034.6
美다우	13,104.1	14,810.3	15,129.7	15,237.1	15,301.3	15,168.0	15,373.8
니케이225	10,395.2	13,388.9	14,455.8	14,404.7	-	14,441.5	14,467.1
상하이종합	2,269.1	2,098.4	2,174.7	2,228.2	2,237.8	2,233.4	2,193.1

◉ 환율

	2012년말	2013. 8월말	2013. 9월말	10/11	10/14	10/15	10/16
원/달러	1,071.1	1,109.0	1,073.0	1,072.0	1,072.0	1,064.5	1,067.0
원/100엔	1,247.5	1,129.2	1,096.0	1,090.5	1,090.7	1,080.5	1,084.7
원/유로	1,416.3	1,470.6	1,449.5	1,454.0	1,452.0	1,442.7	1,444.5
원/위안	171.9	181.5	175.3	175.2	175.5	174.4	175.0
엔/달러	85.86	98.38	97.97	98.28	98.14	98.55	98.84